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장세기 11 주차 (4:16-5:24)
(2016년 2월 28일-2016년 3월 5일)
(제4권 11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1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2 월 2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간 가인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16~17)

- (16 절) 가인은 여호와와 얼굴로부터 떠났고 (וַיִּצְאָ קַיִן מִלְּפָנֵי יְהוָה)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וַיֵּשֶׁב בְּאֶרֶץ-גִּנְזָר קְדֵמַת-עֵדֵן)
- (17 절)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וַיִּדַע קַיִן אֶת-אִשְׁתּוֹ)
그녀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תַּהַר אֶת-הַגִּנֹּזָה)
가인이 도시를 세웠을 때 그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했습니다.
(וַיְהִי בְנֵה עֵיִר וַיִּקְרָא שְׁם הָעֵיִר כְּשֵׁם בְּנוֹ הַגִּנֹּזָ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났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다시 조우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나님은 가인을 철저히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가인을 외면하신 것은 동생을 죽인 데 대한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그러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원래부터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하나님의 귀찮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자유와 자율의 반대는 속박과 순종이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속박 당하거나 복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자율적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와 자율이 전혀 긍정의 의미로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인의 모습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산 탕자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일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상속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다. 가인은 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선택해 간 방향이 동쪽이다. 굳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욕망, 둘로 나눈다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곳이 동쪽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창 3:24). 그들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는 길을 막으신 것이리라.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했고 자신들을 위해 바벨탑을 지었다(창 11:2). 성경은 동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견고

하게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을 쌓았다. 말이 성이지 거대한 도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에 안주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는 인간들의 욕망 앞에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욕망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삶은 계속된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간들에겐 만족할 만한 상한선이 없다. 동방으로 옮겨 바벨이라는 거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그 성이 닿기를 바랐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의 욕망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롯은 어떠한가? 아버지 하란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후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들은 함께 했고, 올라올 때에도 함께 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풍성해진 재산 덕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에 롯에게 제안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8-9).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눈을 들어 그 일대를 바라 보았다. 요단강 남단에 있는 소알까지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 풍부함이 롯을 유혹했다. 그래서 그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 아마도 그는 비좁은 가나안 땅에서 부패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겨웠을 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그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떠나는 날을 기다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애굽 땅같이 비옥하고 여호와와 동산같이 풍요로운 그곳을 마다할 인간이 있겠는가? 결국 롯은 동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남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밖에 없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하나가 된다. 가인이 그랬다.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되자 그 원인이 동생 아벨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였다. 아마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이제 그에게 그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터전마저 버려야 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등지셨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자기 자신 밖에 없었다. 그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 아마도 동쪽에 그가 원하는 그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가인처럼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고 있는가? 동으로 향하는 가인의 뒷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삶이 정말 자유롭고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방황과 거주 사이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6~17)

- (16 절) 가인은 여호와와 얼굴로부터 떠났고 (וַיִּצְאָה קַיִן מִלְּפָנֵי יְהוָה)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וַיֵּשֶׁב בְּאֶרֶץ-נוֹד קְדָמַת-עֵדֵן)
- (17 절)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וַיֵּדַע קַיִן אֶת-אִשְׁתּוֹ)
그녀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אֶת-הֶנֶךְ)
가인이 도시를 세웠을 때 그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했습니다.
(וַיְהִי כֵּן הָעִיר שֵׁם וַיִּקְרָא שָׁם הָעִיר כְּשֵׁם בְּנוֹ הֶנֶ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은 낫땅에 거주했다. 히브리어 낫(נוֹד)은 ‘방황’이라는 뜻이다. 안주하지 못함이다. 이 단어는 ‘거주했다’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거주는 안정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박고 사는 것이다. 실제로 가인은 낫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 이리저리 방황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주했던 곳, ‘낫’(נוֹד)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왜일까? 사실 가인은 머물러도 머문 것이 아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곧 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삶엔 진정한 쉼도 없다. 진정한 안주는 한 장소에 정착한다고 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쉼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의 삶은 늘 불안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보기에 좋고, 마음에 속 드는 낫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착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황이다. 방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다. ‘양자강은 만번을 굽이쳐도 기어이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뜻이다. 깊은 산속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 발원한 물이 처음엔 졸졸 흘러서 시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흘러 내려간 시냇물이 모여 도도히 흘러가는 큰 강을 이룬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세차게 흘러가는 강이건만 그 강은 결코 직진만 하지는 않는다.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억지로 뚫으며 흘러가지 않는다. 앞에 바위가 가로 막고 있으면 그 바위를 휘감고 돌아간다. 큰 봉우리를 만나면 수백 리를 돌아 흐르기도 한다. 강은 이리저리 휘면서 흐른다. 때론 오던 방향으로 다시 구부러져 흐르기도 한다. 그렇게 수만 번 꺾어져도 필경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양자강은 바다가 있는 동을 향해 흐르다가 남으로 북으로 휘어져 흐르기도 하고, 오던 방향으로 구부러져 돌아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끝내는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바다에 이른다. 만번, 아니 수만 번을 굽이치고,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늘 옳은 길이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부드럽게 안고 지나가고, 산을 만나면 산을 감고 멀리 돌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바

위가야속하거나 그산이 원망스럽지 않은 것은 마침내는 바다에 이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고 흘러간다. 언뜻 보기에는 방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이 아니다. 목적을 향해 평화롭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마음은 늘 한 곳에 정착해 있다.

그러나 가인은 정반대다. 그는 고여있는 저수지나 호수와 같다.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도 없다. 바위도 그를 방해 하지 않고, 봉우리도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역주행의 고통도 느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고인 물은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언젠가는 말라 버리거나 썩게 마련이다. 바다는 하나님의 품이다. 영원한 안식이고 자유다. 거기는 만 번을 굽이쳐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굽이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네 삶이다.

가인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성이다. 가인은 낯 땅에 거하며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녹이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역시 가인답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성경에서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중 그 누구도 도시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을 쌓기는커녕 그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갔다. 야곱도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 아들들도 그랬다. 그들 모두는 정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후에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정착했다. 그러나 정착한 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닌 결국 그 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 땅에 뿌리 박고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다. 인생이라는 거친 들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내 본향을 향해 떠나야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거친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야 한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닥쳐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순례자의 운명이다. 외견상 순례자는 영락없는 ‘낯’(Tij)이다. 방향이요 정처없음이다.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은 마침내 다다를 목적지가 있다. 만 번을 굽이치고 거대한 산이 앞을 막아도 뚫뚫하게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길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어디건 등지를 틀고 영원히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순례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그 길에는 중도 포기란 없다. 그렇기에 멈춘 듯 보여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역주행을 해서 바다로부터 한없이 멀어지는 것같이 보여도 결국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기꺼운 맘으로 순례자의 길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당신의 순례길은 힘들긴 하겠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뿌리박고 성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당신을 무엇을 생각하며 그 과정을 이겨 나가나요?

가인의 후예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8~22)

- (18 절) 에녹은 이랏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לְחֵנוֹךְ אֶת־עֵיִרָד)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습니다. (וַעֵיִרָד יָלַד אֶת־מְחוּיָאֵל)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습니다. (וּמְחוּיָאֵל יָלַד אֶת־מְדוּשָׁאֵל)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וּמְדוּשָׁאֵל יָלַד אֶת־לָמֶךְ)
- (19 절)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וַיִּקַּח־לוֹ לְמֶדְיָנָה וְנָאִים)
 한 명의 이름은 아다이고, 두번째의 이름은 질라입니다. (וְשֵׁם הָאִשָּׁתַּיִם צִלְהָה)
- (20 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וַתֵּלֶד עֵדָה אֶת־יָבֶ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הוּא הָיָה אָבִי יֹשְׁבֵי אֹהֶל וּמִקְנֶה)
- (21 절)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וְשֵׁם אָחָיו יוֹבָב)
 그는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הוּא הָיָה אָבִי כָּל־תַּפְשֵׁי כְנֹר וְעוּגָב)
- (22 절) 질라는 또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וַצִּלְהָה גַּם־הוּא יָלְדָה אֶת־תּוֹבֵל לָוֶן)
 그는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לַטֵּשׁ כָּל־חַרְשֵׁי נְחָשֶׁת וּבְרֹזָ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입니다. (וַאֲחֹת תּוֹבֵל־קִיֵּן נְעֻמָּ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
 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 쓴 글의 일부다. 스티
 브 잡스는 21세기 인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혁명가였다. 그가 이룬 눈부신 업적
 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채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도를 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만든 스마트폰은 복음 전도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껏 그를 치켜
 세웠다. 이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한 구
 절을 인용하여 스티브 잡스를 바울에 비견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
 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13-14).

이쯤되면 스티브 잡스는 거의 믿음의 선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쯤은 스티브 잡스의 종
 교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는 보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스티브
 잡스는 불교인이다. 1973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히피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살던 스티브 잡스
 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던 일본인 선불교 승려였던 오토가와 고분의 전도로 불교에 입문했다. 그 이후

그는 한번도 불교를 떠난 적이 없다. 오토가와 고분은 그의 결혼식 주례를 맡을 정도로 그의 영적 멘토였다. 그는 인도에 성지 순례를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으며 아이팟 등 그가 만든 첨단기기의 디자인도 이런 불교적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요, 스티브 잡스를 칭송한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가인의 후예를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물질 문명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우리는 물질이 절대적인 신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물질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돈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의사,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은 다 돈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한다. 자본주의란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자본이다. 일찍이 기독교는 돈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 와해된 로마 교황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고안했다. 돈으로 천국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든 기독교의 핵심은 돈의 위력 앞에서 무참히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이처럼 돈은 복음마저 왜곡시키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루터는 이를 반박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말이 종교 개혁이지 사실은 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가인의 후예는 유목을 목축으로 바꾸었다. 정치없이 떠도는 유목보다는 장막에 거하며 짐승들을 가두어 놓고 키우는 목축을 원했다. 또 다른 후예는 음악과 문화를 만들었다.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왔다. 각종 금속을 다루는 문명의 시작도 가인의 후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이 땅의 물질 문명과 세상 문화의 창시자는 다름 아닌 가인의 후예들이다.

창세기 5 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나온다.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 그저 낳고 죽은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다. 반면에 가인의 후예는 뭔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이 애써 만들어 낸 가치들을 칭송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혈안이 된다.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결국 가인의 후예들의 전철을 따르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외면하며 살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스티브 잡스와 사도 바울을 동일선상에 놓고 칭찬하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땅에서 힘과 명예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의 고백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3~24)

- (23 절)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מֶדָּה לְנִשְׁיָיו)
아다와 쉴라여, 내 말을 들으시오. (עֲדָה וְצִלָּה שְׁמַעוּן קוֹלִי)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נִשְׂיֵי לְמֶדָּה הָאֵזוּבָה אִמְרָתִי)
내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죽였고, (כִּי אִישׁ הִרְגָתִי לְפִצְעָיו)
나를 공격하는 소년을 (죽였습니다.) (וַיִּלְד לְחַבְרָתִי)
(24 절)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면, (כִּי שִׁבְעָתַיִם יִקָּם-קִיּוֹן)
라멕을 위한 처벌은 칠십 칠배입니다. (וְלִמְדָּה שִׁבְעִים וְשִׁבְעָ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라멕에서 끝이 난다. 가인에게 내려진 방황의 삶은 살인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후손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멕도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가인의 계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난 셈이다.

23 절과 24 절은 라멕(לֶמֶךְ)의 아내들인 아다(אָדָּה)와 쉴라(צִלָּה)를 향한 라멕의 고백이요 선포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죽였고, 자기를 공격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랑인지 회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라멕(לֶמֶךְ)은 권력자, 파괴자, 강한 용사라는 의미다. 아마도 라멕은 당대의 권력자였던 모양이다. 라멕의 이름에서만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아내들의 이름에서도 인간 세상의 권력, 번영, 성공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아다(אָדָּה)는 부를 상징하는 귀금속 장신구를 뜻하는 단어다. 금귀고리, 목걸이, 팔찌 등을 뜻하는 이름이다. 당시 장신구는 인간들의 부와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건들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하찮은 것들을 달고 다녔다. 반면,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 지위에 상응하는 값비싼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 아마도 아다(אָדָּה)는 권력자의 아내로서 몸에 특별한 장신구를 지니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된다. 게다가 쉴라(צִלָּה)는 어떠한가? 그녀의 이름은 성공, 번영, 힘을 의미한다. 라멕의 아내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멕과 두 아내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데 라멕의 이 말은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서의 힘의 과시에 가깝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고 그들의 탐욕스러움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는 물론 정치 권력까지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 고려하지 않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부와 권력을 얻었고, 또 그렇게 그것들을 지켜나갔다. 그들의 물질적 탐욕과 권력욕 앞에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은 것이 되었다. 당연히 살인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은 가인이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고한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다고 항변을 한 사람이 가인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다. 그가 후손들을 낳았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한다.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면 라멕을 위한 처벌은 칠십 칠배다!”

소위 자기용서(Self-forgiveness)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뿐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하다.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는 말은 가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라멕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라멕은 이미 하나님처럼 삶의 정상에 오른 셈이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정착하여 세상을 쫓는 삶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다. 경제적인 부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고, 정치 권력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며, 사회적인 명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것이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자리할 틈새조차 없다. 만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이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쌓는 데 기여해 준 조력자요, 부리는 종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천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변영이 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들 밑에서 종살이만 하라는 말이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당시에 권력과 명성을 다 얻었어야 했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 그것을 당연히 누렸어야 했다. 게다가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비참하게 칼에 죽는 일은 없어야 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멋진 노후를 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해로를 하면 안 될 사람이어서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는가? 그들 모두는 변영은 고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 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만 편하고 멋진 인생을 보내려 하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전해 받은 복음에는 아벨의 피는 간 곳 없고 가인의 권력과 부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성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복음이 이 땅에서의 삶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당신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벨의 다른 씨: 셋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5~26)

- (25 절) 아담은 다시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וַיֵּדַע אָדָם עִוָּד אֶת־אִשְׁתּוֹ)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ן)
 그녀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וַתִּקְרָא אֶת־שְׁמוֹ שֵׁט)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구나”라 했기
 때문입니다. (כִּי שֵׁט־לִי אֲלֵהִים וְרַע אַחֲרַי תַּסַּח הַכֹּל כִּי הָרַגוּ קַיִן)
 (26 절) 셋, 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גַּם־הוּא יֶלֶד־בֶּן)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וַיִּקְרָא אֶת־שְׁמוֹ אֶנּוֹשׁ)
 그 때 여호와와 그의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אֲזַי הָיָה לְקָרְאָ בְּשֵׁם יְ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과 그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끝났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욕망을 꿈꿨고 그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대가 하나님을 포기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것으로 성경은 더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제 앵글은 다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 초점을 맞춘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다시 동침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שֵׁט)이라 불렀다. 그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 한 일이라고는 아이들을 낳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다인 듯 싶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직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를 통해 아들들을 낳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준 것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하와는 맏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불렀다. 가인은 ‘얻음’이라는 뜻이다. 둘째를 낳고는 아벨이라 불렀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벨은 ‘없음’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그런데 얻음이라는 아들이 없음이라는 아들을 죽였다. 없음조차 거슬렸는지 결국엔 그 없음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 후에 그 없음을 대신해서 하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다. 셋을 낳은 후 하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구나”(창 4:25)

셋은 보상, 대신함 등의 의미다. 없음인 아벨에 대한 보상이자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다. 아벨 즉, 없음에 대한 보상이니 셋 또한 없음이고 아벨의 자리를 대신했으니 셋 또한 허무다. 셋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 날 때부터 대리자요, 심부름꾼이다. 그렇기에 셋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가 대신한 아벨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데 그가 대신한 아벨이 없음이니 셋 또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이 그의 몫마저 다 차지하면 그만이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태어나면 그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새로운 아들은 그의 인생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 주어 그 이름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고는 철저히 그에게 아벨을 덧씌웠다. 그래서 셋은 아벨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런 셋에게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된 예수님을 발견한다. 예수님이 그랬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 우리 스스로는 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 빠졌다. 켈빈주의자들은 이를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말이다. 참고로 켈빈의 전적 타락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한 의지라고 주장하는 알메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꺼낸 주장이다.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능력 정도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켈빈주의자들은 그런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인간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기고 모든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이름에서 우리는 인간의 절대 무력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보자. 아벨의 죽음과 그를 대신한 셋은 인간들인 아담과 에노스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로서의 없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없음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철저히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부담감을 여지없이 보여주셨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하신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이는 스스로의 있음을 포기하고 철저히 없음의 자리로 가시겠다는 선언이다. 십자가에서 그는 완벽하게 없음이 되었다. 별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지 못하고 철저히 가인, 즉 얻음의 자리에 있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없음이 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들의 자리다. 사실은 우리가 없음이고 우리가 무가치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는다.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당신을 대신하여 없음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가인의 자리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자리에서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그분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죽었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5:1~20)

- (1 절) 이것은 아담의 족보 기록입니다. (זֶה סֵפֶר תּוֹלְדֹת אָדָ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בְּיוֹם בְּרָא אֱלֹהִים אָדָ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בְּדְמוּת אֱלֹהִים עָשָׂה אֹתוֹ)
- (2 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זָכָר וּנְקֵבָה בְּרָאָם)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 (3 절) (וַיְבָרֶךְ אֹתָם וַיִּקְרָא אֶת-שְׁמֵם אָדָם בְּיוֹם הַבְּרָאָה)
아담이 130 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상대로 그를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יְהִי אָדָם שְׁלֹשִׁים וּמֵאָת שָׁנָה וַיֻּלְּד בְּדְמוּתוֹ כְּצִלְמוֹ)
아담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וַיִּקְרָא אֶת-שְׁמוֹ שֵׁת)
- (4 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 년을 살았습니다. (וַיְהִי וַיִּמְיָאֲדָם אַחֲרֵי הוֹלִידוֹ אֶת-נִשְׁתַּת שְׁמֹנְהָ מֵאָ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 (5 절) 아담은 모두 930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 אָדָם אַשְׁרֵי-חַי תִּשְׁעֵ מֵאוֹת שָׁנָה וּשְׁלֹשִׁים שָׁנָה וַיָּמָת)
- (6 절) 셋은 105 세가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וַיְחִי-שֵׁת חֲמֵשׁ שָׁנִים וּמֵאָת שָׁנָה וַיֻּלְּד אֶת-אֵנוֹשׁ)
- (7 절)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שֵׁת אַחֲרֵי הוֹלִידוֹ אֶת-אֵנוֹשׁ שְׁבַע שָׁנִים וּשְׁמֹנְהָ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 (8 절) 셋은 모두 912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שֵׁת עֶשְׂרֵה שָׁנָה וּתִשְׁעֵ מֵאוֹת שָׁנָה וַיָּמָת)
- (9 절) 에노스는 90 세가 되었을 때, 계난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אֵנוֹשׁ תִּשְׁעִים שָׁנָה וַיֻּלְּד אֶת-קִינָן)
- (10 절) 에노스는 계난을 낳은 후, 815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 אֵנוֹשׁ אַחֲרֵי הוֹלִידוֹ אֶת-קִינָן חֲמֵשׁ עָשְׂרֵה שָׁנָה וּשְׁמֹנְהָ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 (11 절) 에노스는 모두 905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 אֵנוֹשׁ חֲמֵשׁ שָׁנִים וּתִשְׁעֵ מֵאוֹת שָׁנָה וַיָּמָת)
- (12 절) 계난은 70 세가 되었을 때,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קִינָן שְׁבַעִים שָׁנָה וַיֻּלְּד אֶת-מַחֲלָלֶלֶל)
- (13 절) 계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 קִינָן אַחֲרֵי הוֹלִידוֹ אֶת-מַחֲלָלֶלֶל אַרְבָּעִים שָׁנָה וּשְׁמֹנְהָ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 (14 절) 계난은 모두 910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 קִינָן עֶשְׂרֵה שָׁנִים וּתִשְׁעֵ מֵאוֹת שָׁנָה וַיָּמָת)
- (15 절) 마할랄렐은 65 세가 되었을 때, 야렛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מַחֲלָלֶלֶל חֲמֵשׁ שָׁנִים וּשְׁלֹשִׁים שָׁנָה וַיֻּלְּד אֶת-יָרֵד)
- (16 절)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 מַחֲלָלֶלֶל אַחֲרֵי הוֹלִידוֹ אֶת-יָרֵד שְׁלֹשִׁים שָׁנָה וּשְׁמֹנְהָ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17 절) 마할랄렐은 모두 895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 מַהֲלָלֶלֶל חֲמֵשׁ וְתִשְׁעִים שָׁנָה וּשְׁמֹנֶה מֵאוֹת שָׁנָה וַיָּמָת)

(18 절) 야렛은 162 세가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יְחִי־יָרֵד אֶתְרִי הוֹלִידוֹ אֶת־קַנּוּן שְׁמֹנֶה מֵאוֹת שָׁנָה וַיֹּלֵד אֶת־עֵנוֹךְ)

(19 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יָרֵד אֶתְרִי הוֹלִידוֹ אֶת־קַנּוּן שְׁמֹנֶה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בָּנִים וּבָנוֹת)

(20 절) 야렛은 모두 962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יָרֵד שְׁמֵי־יָרֵד שָׁנִים וְתִשְׁעִים שָׁנָה וַיָּשַׁע מֵאוֹת שָׁנָה וַיָּמָ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셋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도 단순하다. 그저 태어나서 후손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외의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들은 태어났고 후손을 낳으며 살다가 죽었다. 그게 전부다.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과 4 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자.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일구고 산업을 만들었다. 문화를 창조하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다. 언뜻 보아도 번영과 풍요의 삶을 누렸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들이 그 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가 가인의 후예들 덕분이다. 물론 노아 홍수를 통해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져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의해 이내 복구되었다.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기록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후손을 몇 살에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다. 그들의 만들어 낸 것은 많지만 낳고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 가인의 후예들은 홍수로 모두 죽고 더 이상 이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따라서 가인의 계보에 낳고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 모두 죽음으로 후손이 끊어진 그 자체가 곧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른다.

반면에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은 낳고 죽음만 있다. 삶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낳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기록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 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망가질 정도로 미미한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사라지거나 망가지거나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130 세에 그의 형상대로 그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셋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면 셋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난 것이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성경은 이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5 장의 기록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오로지 낳고 죽는 것 외에 그들이 한 일은 없다. 아담도 셋도 예외는 없다. 그들

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만 그 이름과 삶이 의미가 있다. 4장 26 절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 여호와와 그의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창 4:26 하반절)

셋의 후예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와 그의 이름 안에서’다. 이 구절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로는 ‘브셈 여호바’(בְּשֵׁם יְהוָה)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라는 말을 자주 쓴다. ‘브셈 여호바’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LORD)다. 그들은 오로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인도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요 6:37-3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은 아니다. 가인에 후예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것보다는 늘 하나님이 먼저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흔적을 남기려고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인(사람, 人)의 합성어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시작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만 불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가차없이 독을 뽑어내는 사람들인가?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자. 만약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 자라면 성경은 나에게 관해 어떻게 기록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서만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가진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5:21~24)

(21 절) 에녹은 65 세가 되었을 때,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וַיְחִי תְנוּךְ חֲמֵשׁ וְשָׁ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מְטוּשֶׁלָּח)

(22 절)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וַיִּתְהַלֵּךְ תְנוּךְ אֶת־הָאֱלֹהִים אַחֲרֵי הוֹלִידוֹ אֶת־מְטוּשֶׁלָּח שְׁלֹשׁ מֵאוֹת שָׁנָה)

그는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23 절) 에녹은 모두 365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 כָּל־יְמֵי תְנוּךְ חֲמֵשׁ וְשָׁשִׁים וּשְׁנָה וּשְׁלֹשׁ מֵאוֹת שָׁנָה)

(24 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없었습니다(없어졌습니다).

(וַיִּתְהַלֵּךְ תְנוּךְ אֶת־הָאֱלֹהִים וְאִי־נָו)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כִּי־לָקַח אֹתוֹ אֱלֹהִ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셋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은 하나같이 그다음 후손을 낳고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진이 에녹에 와서 끝이 난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모든 선조들과는 달리 에녹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에녹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을 닮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들어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일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한 자는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으니 그저 추측만으로 ‘동행’이라는 의미를 짐작해 볼 뿐이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יֶרֶךְ)이다.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는 의미다. 그가 162 세에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이름했다. 에녹은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녹이 가인의 아들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이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가인은 언음이라는 말인데 이름에 걸맞게 그

언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도시를 만들어 자식에게 봉헌했으니 말이다. 반면에 셋의 후에 인 에녹의 아버지는 야벳인데 그 뜻은 내려놓음이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았고,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다. 같은 에녹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계보에 들어있는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버림받은 가인의 계보에 들어 있던 에녹은 아버지가 인을 위해 그 이름이 바쳐졌다. 같은 이름도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님께 드려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트하레크’(הִתְהַלַּךְ)다. 이 동사는 그냥 걸어가거나 앞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즉, 앞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다. 마치 부모와 함께 길을 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다.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 아이는 자유롭게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안전한 길에 들어서면 부모는 아이의 손을 일부러 놓아준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앞서 조르르 달려간다. 그러다가 부모가 부르면 그 자리에 멈추거나 다시 부모 곁으로 되돌아온다. 가끔은 부모님 뒤로 처지기도 한다. 옆으로 가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한다. 그러다가 넘어져 무릎에 피라도 나면 울면서 부모를 찾는다. ‘히트하레크’(הִתְהַלַּךְ)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가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다. 아이는 목적지도 모르고 부모를 리드할 수도 없다. 오직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걸을 뿐이다. 그것이 동행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에녹이 잘나서 믿음 생활을 잘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동행은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그리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듯 멋지고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방황해야 했고, 불임인 아내 사래를 통해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로 기다려야 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잘 생각해 보라.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간 죄수였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차례로 순교당했다. 바로 이런 삶이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괜한 몽상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낭만적인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 반대로 고난이요 죽음의 길이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한 히브리서 11 장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툼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 11:35-38).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까?